

### ‘십현담요해’ 고찰 8일 학술대회

성철 스님의 서고 ‘장경각’에서 발견된 희귀본 <십현담요해> 언해본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성철선사상연구원은 10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십현담요해 언해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성철 스님 열반 16주기를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는 △하정웅 백련불교문화재단 연구교수-〈십현담요해〉의 서지학적 고찰 △박진호 서울대 교수-〈십현담요해〉 언해본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최귀국 숙명여대 교수-〈십현담요해〉에 담긴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한중만 원광대 명예교수-〈십현담요해〉, 청량 문인의 <정랑주>, 만해의 <십현담주해> 비교검토가 발표된다. (02)2198-5372 조동섭 기자

### 대덕소년원과 자매결연



9월 29일 자비실천어머니회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식 모습.

자비실천운동본부 자비실천어머니회(회장 해광)는 9월 29일 법무부 대덕소년원 학생들과 자매결연(18명 학생을 맺고 앞으로 장학후원과 명원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광 스님은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해 밝은 사회 아름다운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자비실천어머니회가 설립된 지도 10년이 됐다”며, “2000년 법무부 안산의료소년원을 시작으로 대덕소년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전후방 군부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봉사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 석지 스님, 수석부총재 지암 스님, 묘화심 여수 자비실천어머니회장, 백련화 부산 자비실천어머니회 회장, 윤태길 안양 자비실천어머니회 회장, 보덕심 자비실천어머니회 운영회장, 자비화 어머니회 총무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해철 총정지사장

# 김홍도 그림 기본으로 역사까지 복원

## 양양 낙산사 12일 제2차 복원불사 회향... 11일 산사음악회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바탕으로 복원된 낙산사 전경.

2005년 화재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돼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가 5년 여의 불사를 마치고 옛모습을 되찾았다.

낙산사는 10월 12일 오전 11시 경내 원통보전에서 ‘낙산사 제2차 복원불사 회향식’을 봉행한다. 이에 앞서 오전 5시에는 원통보전 후불탱화·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하고, 11일 오후 9시에는 범종루 앞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회향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신홍사 회주 오현 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법륜 스님,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산사는 2007년 11월 원통보전과 흥련암 범종각 홍예문 등의 전각과 시설 복원(건립)에 이어 설선당과 응향각, 무산지역아동센터 등 12개 전각과 시설을 복원했다.

낙산사 복원은 조선 중기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기본으로 문화재위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다. 빈일루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진필로 현판을 제작했다.

정념 스님은 “낙산사 가람을 복원하는데 있어 단순하게 건물, 당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를 찾는 과정이라 여기고 함께하는 공간,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복원)응향각과 설선당 정취전에 각각 일반인을 위한 명상센터와 일반관광객을 위한 공간, 차담을 나눌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의료봉사’ 인기폭발

## 병 불편 정읍 일원서 추계연합의료봉사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국병원봉사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가 9월 27일 전북 정읍 일원에서 추계연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내장사 소재지인 이평면 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지선 스님, 정읍시 강광 시장, 이평면 외 두지리, 하송리, 팔선리 주민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희한의원, 한일병원, 동국대일산의료병원,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 등 12개 병원과 김은실 진료봉사단장, 한방과 박종훈 원장, 치과 김진선 원장 등 회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임제식에 이어 진행된 봉사는 심전도기, 초소형 혈액검사기(생화학검사) 등 병불련의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 봉사자들의 ‘맞춤형 의료봉사’가 진행됐다. 의료봉사가 시작되자 곳곳에서는 “고맙다. 안심이 된다”는 인사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

날 봉사는 내과·한방과·치과 등 총 186건 진료, 심전도·생화학검사·혈당검사 등 79종의 검사가 실시됐다. 짧은 시간 많은 진료와 검사가 이어졌지만 병불련 회원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이동숙 총무(국립서울병원은 “진료, 검사를 받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 칸이 들끓는다”며 “바쁜 와중에도 회원들의 의료포교 원력으로 원만한 향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대원 스님은 “전국 사찰에서는 병불련이 의료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년에는 내장사 경내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불련은 추계봉사활동에 이어 해외의료봉사활동, 불교의료봉사자의 발굴, 동국대병원 연대 등을 기반으로 의료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 왕흥사지서 대규모 강당지 발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원, 10차 발굴조사 결과 발표

6세기경 백제 왕실 사찰로 발굴조사가 한창인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에서 대규모 강당지가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9월 29일 “부여 왕흥사지 제10차 발굴조사 결과 강당지 등의 규모를 파악했고 강당지 좌우



부여 왕흥사지서 발굴된 강당지 모습.

에서도 부속건물지가 확인돼 왕흥사 중심부 가람배치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여 왕흥사지에서는 목탑지, 금당지, 동·서 회랑지, 축대(동서석축) 및 진입로(남북석축) 등이 확인됐고, 목탑지 심초부에서는 절대연대(577년)를 가진 ‘창왕명’ 사리기와 각종 공양구가 출토돼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에 확인된 강당지는 금당지 북편기단으로부터 16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규모는 동서 46.8m,

남북 19.2m이다. 이는 군수리사지(45.45×15.15m), 금강사지(45.1×19.1m), 능산리사지(37.4×18.0m) 등 현재까지 확인된 6세기대 백제사찰 강당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강당지의 동·서·북편기단은 30cm 내외의 활석을 쌓아 만든 석축기단

이고, 남편 기단은 다듬은 석재를 이용한 가구식 기단이다. 남편기단 바깥으로는 10cm 내외로 활석과 기와를 뺀 상태로 세워 조성한 ‘낙수받이시설’도 드러났다. 또, 강당지 서편기단에서 1m의 간격을 두고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는데, 동편기단은 돌로, 남편기단은 평기와를 쌓아 조성됐다.

김용민 소장은 “강당지 및 주변 건물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그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갈등 해소 모범... 신행도 모범”

## 원주경찰서 범우회 부처님 봉안 8주년 법회

한편, 경승실 부처님 봉안 반대 운동 사건은 2001년 9월 원주경찰서 경승실에 부처님을 봉안한데 반발해 원주지역 개신교인 3500여 명이 원주전 고수부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일부 교회에서는 불상 철거를 위한 부흥성회를 가진 대표적인 해불사건 중 하나이다.

이날 법회에는 강원지방경찰청 경승지단장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원주경찰서 경승실장 현각 스님(성불원 주지), 원주지구 사암연합회장 적현 스님(치약산 구룡사 주지)을 비롯해 60여 경불회원, 지역 각급 신행단체장들이 참가했다.

허남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날 이웃 종교인들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감사하다”며 “경불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정진하고 시민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승실 부처님 봉안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대처한 것은 종교 갈등을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인 만큼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며 “더욱 정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극대 강원지사장

# “계층포교 매진하겠다”

## 불레협 12대 회장 도경 스님 취임

“제가 열심히 뛰어나겠습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단체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 제 11·12대 회장이 취임법회가 9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혜종 스님, 신임회장 도경 스님, 열린

선원장 법련 스님, 초대회장 혜일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회 회장인 송묵 스님은 해의 일점으로 불참했다.

혜종 스님은 치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불레협 회장 소임을 원만히 회향한 송묵 스님의 노고를 치사하며 새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도경 스님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임회장 도경 스님(예천 원명사 주지)은 “포교원장 혜종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 등 사부대중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어린이·청소년 및 계층 포교에 매진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불레협 활동에 적극 관심과 애정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지한 스님(봉영사 주지), 귀영 스님(바라오페란 단장, 양주 대승사 주지), 종률 스님(세광사 주지)에게 부회장 임명패도 수여했다. 이상연 기자

# 대승종 2009 종도수련회 봉행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도일)은 9월 22~24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2009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교육원 교욱은 종단운영의 기본으로 각 종도들은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02)951-1074 노덕현 기자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부총정 지선 스님 취임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총무원장 도일 스님은 “종도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교육원 교욱은 종단운영의 기본으로 각 종도들은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02)951-1074 노덕현 기자

# 천년고찰 낙산사 복원불사 2차 회향식

천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복원불사를 이루면서  
성원과 격려 보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라와 국민이 안락하고  
모든 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복원불사 2차 회향식을  
아래와 같이 모시면서  
낙산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불보살님 가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천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낙산사  
주지 정념 합장

■ 일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12일(월) (음력 8. 24) 오전 11시

■ 장소 : 낙산사 원통보전

■ 회향불사 : 정취전, 설선당, 응향각, 빈일루, 송월요, 근행당, 고향실, 해수관음 108법륜석, 원통보전(후불탱화, 신중탱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 (033) 672-2447~8 팩스 : (033) 671-1445